

『杜詩諺解』 注釋文의 文體에 對하여 *

- ‘懸吐體’와 ‘諺語’ -

杉山 豊(스기야마 유타카)**

1. 들어가며
2. 『杜詩諺解』 注釋文 文體의 概觀
3. 懸吐·諺解 混合體 注釋文의 類型
 - 1) 羅列 2) 連結
 - 3) 內包 4) 混入
4. 變格漢文的 懸吐體 注釋文
5. 『杜詩諺解』 注釋文의 言語的 位相
6. 나가며

1. 들어가며

韓國語는 역사상 오랜 기간에 걸쳐 漢語와의 접촉을 거치면서 적지 않은 상호 작용을 일으켰으며 그 결과로 문헌상에 다양한 言語相을 남기게 되어, 這間에 많은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아 왔다.¹⁾

本稿에서는 그러한 맥락에서 『分類杜工部詩』(이하 『杜詩諺解』)의 注釋文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이하에서 자세히 살펴볼 바와 같이 『杜詩諺解』의 注釋文 중

* 이 논문은 2017년 12월 1일~2일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열린 한국경학학회·규장각한국학연구원 공동개최 국제학술대회 “경학사의 시야에서 바라본 소학류(小學類) 문헌”의 발표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本 研究는 日本學術振興會(JSPS) 科研費 若手研究(B) 15K21488의 支援에 依하여 이루어졌음.

** 日本 京都産業大學 外國語學部 아시아言語學科 韓國語專攻 助教(Assistant Professor).

1) 이에 대해서는 伊藤英人(2010, 2013, 2017)에서 개관된 바를 참조하였다.

적지 않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소위 ‘懸吐漢文’의인 문체이다. 그러나 이 문체는 동시에 완전한 漢文(=古典中國語)에서 벗어난 韓國語의인 특징을 함께 보여 준다는 점에서 ‘韓中 兩言語의 接觸의 所産’이라는 점이 일찍이 지적된 바 있다.²⁾ 본고에서는 이러한 『杜詩諺解』 주석문의 문체에 대한 기초적인 분석을 통하여 그것이 놓인 言語의 位相에 대하여 고찰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本稿에서는 『杜詩諺解』 初·重刊本 가운데 初刊本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初刊本 現存本에 대하여 筆者가 校勘을 거쳐 작성한 定本 텍스트를 자료로 사용하여 용례를 수집하였다.³⁾

2. 『杜詩諺解』 注釋文 文體의 概觀

周知하다시피 『杜詩諺解』는 杜甫詩 正文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대체로는 正文 한 聯(예외도 많음)을 단위로 하여 雙行으로 된 注釋文, 諺解文이 붙는 형식을 취한다. 注釋文과 諺解文 사이는 圓圈(○)에 의해 구분된다. 다만 注釋文은 없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들 가운데 注釋文은, 이미 선행연구들에서 누차 지적되어 왔듯이,⁴⁾ 文體에 따라 몇 가지의 유형으로 다시 분류된다. 다음의 예를 보자:

- (1) 宗臣은 爲時之所宗尙者ㅣ라. 此는 言肅宗이 收京都而修寢廟호시며 大臣이 受遺詔而立代宗也ㅣ라. (“先帝嚴靈寢 宗臣切受遺”) (0303a3)⁵⁾
- (2) 알·피·디녀 갈·제·길 :녀말 바·차·이 :피·해 올·아 보·디 :몸·호니 오·늘
샤·이 :피해·와 :쉬노·라 니르·니라. (“牽迫限脩途 未暇杖崇岡 歸來覩命駕 沐浴休玉堂”) (1302b8)
- (3) 鑷은 족접·개 지·버·싸혀·는 거·시라. (“東柯遂衰懶 休鑷鬢毛斑”) (1341a7)
- (4) 足繭은·바리 부·르·터 고·티·곤 홀·시라. 甫ㅣ 自言去留無定호야 今徒足繭
荒山奔走而已니라. (“老夫不知其所往 足繭荒山轉愁疾”) (1649a1)

2) 南豊鉉(1972c, 1973) 등.

3) 校勘 작업에서 사용한 『杜詩諺解』 初刊本 텍스트에 대해서는 本稿 篇末 ‘參考文獻’ 목록 참조. 이 校定本은 凡例, 校注를 달아 공개할 계획이다.

4) 南豊鉉(1973: 489-490), 李鍾默(1998: 150-154) 참조.

5) 출처 표시는 해당 注釋文 또는 諺解文이 시작되는 위치를 나타낸다.

(1)은 漢文에 懸吐를 단 문장으로 된 ‘懸吐體⁶⁾ 注釋文이다. 이 예는 『杜詩諺解』의 중심적 底本으로 지목되는⁷⁾ 『纂註分類杜詩』의 주석 가운데 ‘師曰：言肅宗收京，修寢廟也.’，‘洙曰：漢以蕭何爲宗臣，以功業爲時所宗尙也. …’，⁸⁾ ‘師曰：言受遺詔，立代宗也.’ 등을 바탕으로 적절히 節略하거나 일부 語詞를 보태어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2), (3)은 韓國語 문장으로 된 ‘諺解體⁹⁾ 注釋文이다. 이 중에서 (2)는 이 구절의 意境을 풀이한 것으로 諺解體 注釋文에는 이러한 유형이 많이 속한다고 한다.¹⁰⁾ 한편 (3)은 漢文 단어의 뜻을 그것에 대응하는 한국어로 풀이한 것으로 역시 語句의 뜻을 짧은 말로 간결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선택된 조치로 이해된다.

(4)는 하나의 注釋 안에 懸吐體와 諺解體의 두 가지 文體가 모두 나타나는 유형이다. 이 예는 『纂註分類杜詩』의 주석 가운데 ‘趙曰：公自言去留未定，今徒流落，而足重繭耳。足胠如繭也。所謂‘重既¹¹⁾ 累繭’，是也.’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다만 ‘足胠如繭也.’에 해당되는 내용을 한국어 문장으로 풀이해 놓았다. 本稿에서는 이와 같은 懸吐體와 諺解體가 혼합된 문체로 된 주석문을 중심적인 검토 대상으로 삼을 것이며, 이를 ‘(懸吐·諺解)混合體’ 注釋文이라 칭하기로 한다. 그런데 이 混合體 注釋文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混合’의 양상에 따라 다시 몇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됨을 알게 된다. 이하에서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고자 한다.¹²⁾

6) 이 명칭은 李鍾默(1998: 150)에 의함.

7) 沈慶昊(1998: 42-46), 安秉禧(1998: 110), 李鍾默(1998: 144-146) 등.

8) 한문에 대한 標點은 인용자에 의함. 이하 이와 같음.

9) 역시 李鍾默(1998: 150)에 의함. 本稿에서는 일단 이 명칭을 援用키로 하되, ‘한문 원문을 직역 중심으로 한국어로 옮긴 글’(조남호 선생님 토론문에서 인용)을 떠오르게 하는 ‘諺解體’라는 명명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다만 이하의 논의를 통해 드러나게 될 바와 같이 本稿에서 사용하는 ‘懸吐體’며 ‘諺解體’라는 문체 구분은 결국 임시적인 조치이므로, 논의 진행의 편의상 역시 임시로 기존의 명칭을 그대로 따르고자 한다. 지난 2017년 한국경학학회 국제학술대회(2017.12.01.~12.02,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토론 석상에서 이 문제를 포함하여 귀중한 조언, 가르침을 주신 明知大學校 國語國文學科 趙南浩 선생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올리는 바이다.

10) 李鍾默(1998: 153) 참조.

11) 『九家集注杜詩』에서는 ‘重胠累繭’(卷13).

3. 懸吐·諺解 混合體 注釋文의 類型

이하에서는 混合體 注釋文에서 懸吐體와 諺解體가 서로 어떠한 관계를 맺고 혼합을 이루고 있는지에 주목하여 몇 가지로 분류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羅列

이 부류는 하나의 注釋 안에서 懸吐體로 된 문장과 諺解體로 된 문장이 단순히 나열된 유형으로 위에서 제시한 (4)도 여기에 속한다. 懸吐體만으로 된 부분과 諺解體만으로 된 부분이 각각 하나의 문장으로 완결되어 있다는¹³⁾ 점에서, 懸吐體 注釋文과 諺解體 注釋文의 단순한 복합으로 보아 문장의 유형으로서는 이들에 각각 準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다만 그 예 몇 개만을 제시하기로 한다:

(5) 渭水秦山은 指長安호니 甫之故鄉이라. ·모미 늑고 ·또 사·호물 호·니 故鄉·을 볼 ·동·말 ·동·호는 :마리·라. 此皆所以爲愁也 | 라. (“渭水秦山得見否 人今罷病虎縱橫”) (0334b2)

(6) 郝隆이 爲南蠻參軍호야 上巳日에 作詩호더 用蠻語호니라. ·이는 甫 | 蠻사 짜·해 오·래 :사니 參軍 아·니 드외·야도 아·히 ·덜히 겿 :마를 :아·다 날 ·오·미니·라. (“兒童解蠻語 不必作參軍”) (1032b8)

12) 이하에서 확인될 바와 같이 ‘懸吐體’와 ‘諺解體’는 그 경계에 있어 다분히 연속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 두 가지를 截然히 분간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福井玲(1987: 33)에서도 일찍이 지적된 바 있듯이, 『杜詩諺解』 주석문에 있어 懸吐體 부분에는 傍點이 표기되지 않는 것이, 諺解體 부분에는 傍點이 표기되는 것이 각각 원칙이다. 그러므로 일단은 이 傍點의 유무를 ‘懸吐體’와 ‘諺解體’를 구분함에 있어 객관적 근거의 하나로 삼고자 한다. 本稿에서 용례를 (完帙이 전해지는 重刊본이 아닌) 初刊本에서 수집한 것 역시 이상과 같은 사정으로 말미암는다. 다만 상호간에 소수의 예외가 존재한다 [‘瀼은 몫 일후미라.’ (“瀼東瀼西一萬家 江北江南春冬花”) (1345b5); ‘膾은 石證反호니 有餘也 | ·라’ (“舊采黃花膾 新梳白髮微”) (1130b3)]. 또한 諺解體 注釋文이라 하더라도 원문에서 따온, 주석을 달 어구에 붙은 조사에는 傍點이 표기되지 않는 경향이 있으나 [臨洮는 古을 일·후미·라 (“年少臨洮子 西來亦自誇”) (1336b5)] 역시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緣情·은 ·글 지·소더 모·로매 :아·만·란 ·쁘디·나 브·터 ·호·느니·라 (“緣情慰漂蕩 抱疾屢遷移”) (1609b5)].

13) 그러한 의미에서 懸吐體, 諺解體로 된 문장 상호간의 맥락 관계(順接, 逆接, 數衍 등)에 대해서는 여기에서는 차치키로 하여 더 이상 논하지 않는다.

- (7) 스랑 · 흐논 시·름 ·보와 므슴 흰 ·호미 雲霧 허 허·고 하·늘 :봄 ·갈 흐·니라.
此는 言豈特會與崔로 談論이 如決江河而已리오? 今又思相見也 ㄴ라. (“豈但江
會決 還思霧一披”) (2050a2)

2) 連結

한 문장 안에서 懸吐體로 된 부분과 諺解體로 된 부분이 連結語尾 내지는 그
것에 準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요소로 이어져 있는 유형이다. 우선 용례를 보자:

- (8) 鍾鳴而炬銷則夜向晨 ㅎ니, 明府 기:들우·믈 :새 ·도록 흘 ·시라. (“金吼霜鍾徹
花摧蠟炬銷”) (1425a7)
- (9) 富春秋는 言年少 ㅎ니, 財寶·애 가·줄·비건·덴 가·터 잇는 거·시 가·스멸 ·시라.
 (“韋生富春秋 洞徹有清識”) (2249a5)
- (10) 黃精草□ 久服 ㅎ면 輕身延年 ㅎ느니라. 藐姑□山에 有神人 ㅎ니 肌膚 ㄴ 若冰雪
ㅎ·니, ·이는 도로 저·믈 양·즈를 니르·니라. (“掃除白髮黃精在 君看他時冰雪
容”) (1303b8)
- (11) 膾寶衣는 :사르·미 여·위면 ·오시 어·위느·니, 言公主 ㄴ 愁恨而不梳粧也 ㄴ라.
 (“愁思拋雲鬢 腰支膾寶衣”) (0517a4)
- (12) 咫尺은 고 스·시 :머디 아·니 흘 ·시니, 言爲宰執이 不遠而乃謫去也 ㄴ라.
 (“秉鈞方咫尺 鍛翮再聯翮”) (2017b8)
- (13) 子遺는 半·맛 ·몸 가·지니·도 가·터니 :엿·닷 :마리·니, 此는 言軍中에 舉無
遺策也 ㄴ라. (“相公鎮梁益 軍事無子遺”) (2222b7)
- (14) 黃霸 ㄴ 爲潁川太守 ㅎ야 治爲天下第一·이어늘 徵爲京兆尹 ㅎ고, 河內人 :사르
·미 寇恂을 太守 :히오·라 :비니, 以中丞으로 比二人 ㅎ니라. (“寵渥徵黃漸
權宜借寇頻”) (2306b8)
- (15) 車箱谷은 深不可測이오, 箭栝峯은 우·회 굶·기 잇느·니 하·늘 ·보·느·니라.
 (“車箱入谷無歸路 箭栝通天有一門”) (1304b2)
- (16) 雷同은 謂雷之發聲에 物이 無不同時應者故로, 물읷 :이리 ·갈 ·호믈 雷同·이
라 ·ㅎ느·니라. (“從軍十年餘 能無分寸功 衆人貴苟得 欲語羞雷同”) (0529b2)

예문 (8)~(13)은 연결어미 ‘-(으/으)니’에 의해 懸吐體 부분과 諺解體 부분이
이어져 있다. 이와 같이 ‘-(으/으)니’에 의하여 연결되는 예가 이 ‘連結’ 유형 중
에서는 가장 많다. 위에서 살펴본 (5)~(7)의 예들과 비교해 보면 ‘-(으/으)니’
를 가진 語形을 終結形으로 바꾸어 보아도 의미, 맥락상 특별한 변동을 가져오
지는 않아 보인다. 즉 비록 하나의 문장으로 연결되어 있기는 하나 ‘-(으/으)니’

에 의해 이어지는 懸吐體 부분과 諺解體 부분은 또 각자 하나의 문장에 준하는 자격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하여 위의 ‘羅列’ 유형과 매우 가까운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으/으)니’에 의해 연결되는 예에 비하면 소수이기는 하나 (14), (15)와 같이 ‘-고’에 의하여 懸吐體 부분과 諺解體 부분이 연결된 예도 존재한다.¹⁴⁾

(16)은 懸吐體 부분 마지막의 ‘故로’ 이하에서 諺解體 부분이 이어지는 예이다. 여기에 나타나는 ‘故로’는 엄밀한 의미로 연결어미라 할 수는 없다. 그런데 南豐鉉(1973: 550)에서 『杜諺』에서 한어의 ‘故’는 형태론적으로는 명사로 파악하여 ‘로’만을 현토하였고 통사론적으로는 ‘-르시’와 동일하게 原因句의 構成素로만 파악한 것이라 주장된 바 있다. 이러한 ‘故로’의 기능, 성격을 감안하여 여기에 분류하였다.¹⁵⁾ 懸吐體 부분과 諺解體 부분을 잇는 위치에서 사용된 ‘故로’의 예는 이 한 개뿐이다.

14) 이 밖에 다음과 같은 예는 후술할 ‘內包’의 예와 구분하기가 쉽지 않으나 여기에서는 일단, ‘李陵曰 … ㅎ-(懸吐體)와 ‘:어더 주·기다’(諺解體)가 ‘-고’에 의하여, 또 李陵의 발화 부분 ‘士氣少衰ㅎ-(懸吐體)와 ‘軍中·에 :엇테 :겨지·비 업·스리·오’(諺解體)가 ‘-(으/으)니’에 의하여 연결된 예로 보고자 한다:

李陵曰士氣少衰ㅎ니 軍中·에 :엇테 :겨지·비 업·스리·오 ㅎ고 :어더 주·기다. (“婦人在軍中 兵氣恐不揚”) (0868a4)

15) 이 밖에 南豐鉉(1973: 551)에서는 漢語의 ‘則’ 역시 ‘禿尾槎頭는 皆魚名이니 言槎頭 | 見此東津之魚則은 逃走而避之也 | 라 (“徐州禿尾不足憶 漢陰槎頭遠遁逃”)(1662b2)와 같이 懸吐된 예로 보아 ‘下句의 頭部에 쓰여 결과를 표시하는 구성소로 보지 않고 上句의 末部에 쓰여 條件을 나타내는 構成素로 파악’된 바 있다(같은 글에서 ‘則은’의 ‘은’에 대해서는 “-면’의 ‘니’과 동일한 添辭로 해석하고 있다). ‘則’에 대한 이와 같은 懸吐의 예로서 필자의 조사 범위 내에서는 南豐鉉(1973)에서 제시된 위의 예에 더하여 ‘言籠柵을 無間隙則은 蝮蟻不遭雞之啄이오 雞亦免狐貉의 所害니라 (“我寬蝮蟻遭 彼免狐貉厄”)(1713b4) 한 개가 확인되었다. 이들 두 예를 제외하면 역시 南豐鉉(1973: 551)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則’ 앞뒤에 懸吐된 예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 밖에 또한 ‘言酬報嚴武의 知我之義分然後에야 終老山林也 | 라 (“暫酬知己分 還入故林棲”)(0708b6)와 같은 예로 보아 ‘然後’ 역시 前部 要素에 붙은 後置 成分으로 기능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竹越孝(2015)에서는, 이와 같이 漢語의 前置成分이 한국어의 助詞, 語尾 등 後置成分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되었으며, 그러한 한국어의 간섭으로 인하여 漢語의 前置成分이 後置의 것으로 사용되는 독특한 용법을 낳게 되었음을, 중국어사의 관점에서 상세히 논의한 바 있다.

3) 內包

이 유형도 한 문장 안에서 懸吐體로 된 부분과 諺解體로 된 부분이 혼재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連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구조상은 약간 더 복잡하다. 우선 용례를 살펴보자:

- (17) 三階는 天之三台니 三階 | 正호면 天下 | 大平호는니 此는 言 이 제에 建都
·호미 비·록 天下·를 便安·케·코져 호·나 然偏在一方이라 未能鎮定萬國也 |
니라. (“雖倚三階正 終愁萬國翻”) (1333b2)
- (18) 言老病·호야 :버데 가·디 :몰 호·디웨 非故意離群也 | 니라. (“杖藜妨躍馬
不是故離群”) (1349a6)¹⁶⁾
- (19) 此는 言許生의 能詩 | 得於心而應於口호야 無差失호미 如大馬·의·짓 :둔
두·드려 鳴·로·매 得於心應於手호야 不失毫芒也 | 니라. 鳴鑄은 比誦詩之聲
호다. (“應手看捶鉤 清心聽鳴鑄”) (1601b8)
- (20) 青□山이 在蜀郡호니 爲五嶽·에 위두 홀·시 일·후물 丈人山이라 □다. 山有
穴이 通岷崙호니 仙人張道古의 隱處 | 라. (“爲愛丈人山 丹梯近幽意”) (1303b3)

(17), (18)[, 및 (19)]는 懸吐體 부분에 속하는 ‘言’의 作用域(scope)에 諺解體로 된 부분이 비교적으로 복잡한 구조, 내용을 가진 節을 구성하여 내포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19)는 ‘如’의, (20)은 ‘爲’의 作用域 안에 諺解體로 된 절이 내포된 예이다.

이상은 懸吐體에 속하는 요소의 作用域에 諺解體로 된 요소가 내포되는 예들이었으며, ‘內包’로 분류되는 예의 대부분은 그러한 경우들이다. 반대로 諺解體에 속하는 요소의 作用域에 懸吐體로 된 요소가 내포되는 예로서는 다음의 한 개가 확인되었다:

- (21) 이는 幽僻之處 | 라 可以卜居 | 니 誅鉏茅草之勞를 내 모·매 不·히 너·규리
·라 호·니라. (“更是無人處 誅勞任薄躬”) (1330b6)

16) 이들 (17), (18)의 예에서 ‘言’의 作用域에 내포된 부분에서는 각각 ‘호·나’의 ‘-(으/으)나’, ‘호·디웨’의 ‘-디웨’에 의하여 諺解體로 된 부분과 懸吐體로 된 부분이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3.2.에서 살펴본 ‘連結’ 유형에 참여하는 연결어미는 거기에서 소개한 몇 가지만이 존재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이 예에서는 ‘(이논) ~ 흐-’ 구성을 가진 諺解體 문장에서 ‘흐-’의 작용역인 被引用 부분에 懸吐體로 된 節이 내포되어 있는바, 위의 (17) 및 (19)와 같은 ‘(此논) 言 ~’ 구성의 경우와 대칭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서는 그 두 가지가 다시 복합된 예도 존재한다:

(22) 此논 言 劉詩·를 ·들 :마다 :어더 ·보노·라 니를 ·시라. (“近有風流作 聊從月 繼微”) (2022b1)

(23) 此논 言 올·히 여·름 머·거든 ·오는 ·히예 ·또 여·러 당상 머·그리·라 ·흐논 :마리·라. (“高秋物餒貧人實 來歲還舒滿眼花”) (1522a5)

(22)의 ‘劉詩·를 ·들 :마다 :어더 ·보노·라’, (23)의 ‘올·히 여·름 머·거든 ·오는 ·히예 ·또 여·러 당상 머·그리·라’는 각각 ‘言’(懸吐體)의 작용역인 동시에 ‘니르-’, ‘흐논 :말’(諺解體)의 작용역이기도 한 것이다.¹⁷⁾

4) 混入

이상에서 살펴본 경우들 외에 懸吐體를 基調로 하는 문장(내지는 문장에 준하는 절) 안에 諺解體의인 ‘斷片’이, 혹은 반대로 諺解體를 기조로 하는 부분에 懸吐體의인 ‘斷片’이 간헐적, 우발적으로 섞인 것처럼 보이는 예가 존재한다.¹⁸⁾ 이들 가운데에는 위에서 살펴본 ‘內包’의 경우와 엄밀히 경계를 긋기가 어려운 예도 있으나, 뒤섞인 요소가 대체로 한 단어(어절) 정도의 짧은 단위로 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임시로 별개의 유형으로 분류하기로 한다.

우선 懸吐體 문장에 諺解體的 斷片이 혼입된 예를 보자:

17) 현대어에서 볼 수 있는 ‘非但 … 뿐만 아니라’, ‘不可不 … -지 않을 수 없다’, ‘虛送歲月을 보내다’와 같은 표현을 상기케 하여 흥미롭다.

18) 여기에서는 대체로 ‘고유어로 되어 있는 한 단어(주로 자립적 체언이나 용언 어간, 또는 부사 등), 또는 의미적으로 긴밀히 결합된 극히 짧은 단위(인용 동사 ‘흐-’는 제외)’를 임시로 ‘諺解體的 斷片’이라 부르기로 한다. 한편 ‘懸吐體的 斷片’이란 (한국어로서 정착된 한자어와의 구분이 쉽지 않으나, 注釋文이나 諺解文의 용례들을 참조하였을 때에) 고유어로 표현할 수 있을 범함에도 불구하고 ‘생소한 漢語’를 사용하여 표현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 일단 규정해 놓기로 한다. 따라서 이는 어디까지나 편의적인 조치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 (24) 竹枝歌는 巴渝之遺音이니 ·이¹⁹는 夔峽이 歌之未好호니 썰·리·나 :갈·디니·라 호·다. (“竹枝歌未好 畫舸且遲回”) (2119b5)¹⁹⁾
- (25) 無水而沉을 謂之陸沉이니 言汨沒失所也 | 라. 此는 言時俗이 薄惡호니 ·나²⁰는 忘世而汨沒也 | 라. (“反樸時難遇 忘機陸易沉”) (0316a5)
- (26) 隨毫末은 言細小也 | 라. 練光·은 ·몹··빛²⁰치 如練也 | 라. (“嶺鴈隨毫末 川蛻飲練光”) (1642b4)²⁰⁾
- (27) 燕南濟上은 皆地名이니 :다 黃河泛溢處 | 라. (“燕南吹畎畝 濟上沒蓬蒿”) (1328b7)
- (28) 橋前二柱曰華表 | 니 네 白鶴이 集遼東華表柱호니라 靑龍은 言橋影也 | 라. (“天寒白鶴歸華表 日落靑龍見水中”) (1535a2)
- (29) 疣贅는 餘肉이니 卽 ·혹·이라. 甫 | 自傷身在天地 | 如人之有疣贅也 | 라. 幸未枯는 言命尙存也 | 라. (“於時見疣贅 骨髓幸未枯”) (0640a8)

(24)의 ‘이¹⁹는’은 전형적인 懸吐體라면 ‘此²¹는’이 기대되며 그 용례는 『杜詩諺解』 注釋文에서는 매겨할 수 없다.²¹⁾ 또한 역시 懸吐體가 기초를 이룬 (25), (26)에 서는 주격적인 위치에 ‘나’, ‘몹··빛’이, (27), (28)에서는 부사(어) ‘:다’, ‘네’가 고유어로 나타나 있다. 『杜詩諺解』 編纂者들이 이러한 단어들을 한문으로 표현하지 못하였다고는 생각하기 어려우므로, 이유는 분명치 않으나 우발적으로 섞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한편 (29)의 ‘혹’은 ‘疣贅’의 뜻을 고유어를 사용함으로써 간결하게 설명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으므로,²²⁾ 문장은 비록 懸吐體로 구성되어 있으나 의도적으로 고유어를 혼입시킨 것으로 이해된다.

다음으로 諺解體 문장에 懸吐體의 斷片이 혼입된 예는 다음과 같다:

- (30) 姹女는 水銀이니 鍊丹之藥이라. 此²²는 :님그·미 보야·호로 求仙·호실 저·기 仙藥 지·슬 姹女·를 시·러 ·오 다·가 ·비 :배다 니르·논 :마리·라. (“姹女凌波日 神光照夜年”) (1534a4)

19) 이 예는 ‘이¹⁹는’ 부분에서 시작되는 諺解體 부분에 懸吐體로 된 ‘夔峽이 歌之未好호니’가 혼입 또는 내포된 것으로 보는 것도 가능할 듯하다. 이렇듯 혼입과 내포, 그리고 내포, 혼입의 이를테면 ‘主客’은 다분히 상대적이라 할 수 있다.

20) 이 예에서 ‘練光·은’에 傍點이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오히려 여기부터를 諺解體로 보고 懸吐體로 된 ‘如練也 | 라’가 혼입된 것으로 보는 것도 가능할지 모른다.

21) 本稿에서 인용한 예문들 중에서도 (1)을 비롯하여 비밀비재하다.

22) 위의 예문 (3)도 참조.

- (31) ·이는 硯·의 ·쿠를 니르·니라 (“揮灑容數人 十手可對面”) (1653b2)
- (32) 安慶緒를 鄴城에 圍·호얏 다·가 잡·디 :몬고 헤·여 ·디 ·이 제 ·드록 往來 防戍·케 ·혼 :이를 恨 홀·시라 (“那堪往來戍 恨解鄴城圍” cf. 諺解文: ‘… 鄴城·을 쁘·렛 다·가 헤·여 :둔 :이를 :눅웃노·라’) (1337b4)
- (33) 楚俗·이 ·이 ·프레 ·비를 비·러 ·비 ·오나·든 必·沉生·호야 報·苔·호느·니라. ·이 :돌히 ·를 밧·기 泐·만 :내 와·드면 ·빅·를 ·히야 報·리느·니라. (“沉牛苔 雲雨 如馬戒舟航” cf. 諺解文: ‘쇼를 ·드마 雲雨·를 報·苔·호느·니 …’) (1323b8)
- (34) 振은 擘모이니 振撥은 다·덜·어 이·어는 :양·이라. 籬·柵·護·松·이러·니 ·이 제 허·러 報·려·실·시·니피 이·우·니라. (“所插小藩籬 柵亦有隄防 終然振撥損 得愧千葉黃” cf. 諺解文: ‘고·자·뒷는 :저근 ·울흔 柵·來·또 막·줄·오미 잇·더니 …’) (1814a2)

(30)은 전형적인 諺解體라면 ‘·이느’이 나타남직한 위치에 ‘此느’이 사용된 사례로 위의 (24)와 반대가 되는 경우이다. (31)은 ‘벼·로²³⁾’라는 고유어를 사용하지 않고 ‘硯’이라는 한자어를 사용한 예이며, (32) 역시 ‘쁘·리·’라는 고유어를 사용할 수도 있는 자리에서 ‘圍(호-)’라는 한자어를 사용하였다.²⁴⁾ 이 정도가 되면 體言이나 語根 부분에 일반적인 고유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뿐 ‘懸吐體의 混入’이라 하기는 어려울지도 모르나, 일단 가장 輕微한 예로 간주하여 여기에 분류해 놓는다.²⁵⁾

23) 같은 詩의 諺解文에 ‘三峽中·에 奉使·호야 :긴 :뒷·포람 부·러서 :돌 벼·로를 :얻도·다. “奉使三峽中 長嘯得石硯”’(1653a3).

24) 본고에서 소개한 예를 직접 다루지는 않았으나, 南豐鉉(1972a: 1972b)에서는 15세기 자료에서 관찰되는 1음절 한자어 어근을 가진 단어들에 대하여, ‘一時的인 干涉’에 불과한 것과 한국어로서 ‘普遍化’된 것이라는 구분을 시도한 바 있다. 또한 조남호(2001: 153-159)에서는 『杜詩諺解』 諺解文의 한자어에 대하여 本文과의 대응관계를 고찰함으로써 그 위상을 논하고 있다. 이들 논의에서 다루어진 (杜詩 본문에 대한 對譯으로서의) 諺解文의 경우와 본고에서 문제 삼고 있는 注釋文에서 사용되는 ‘漢字語’의 위상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25) 더욱이 다음과 같은 經書諺解의 예에 비추어 본다면 여기에서 제시한 예와 같은 경우까지 아울러서 ‘諺解體’라 할 수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子·즈 | 곶·사·디 故·교·를 溫·은·호·야 新·신·을 知·디 호·면 可·가 히 卞 師·스 | 되·염·즉 호·나·라. “子·즈 | 曰·할 溫·은·故·교·而·시·知·디·新·신·이·면 可·가·以·이·爲·위·師·스·矣·의·니라.” (『論語諺解』 1:13b)

한편 (33), (34)는 漢語로서 하나의 절 또는 문장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²⁶⁾ 길이는 비록 짧다 하나 위의 '內包'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할지도 모른다. 요컨대 앞서도 말하였듯이 '內包'와 '混入'이란 그 사이에 명확한 경계를 그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연속적인 관계에 있다 하겠다.

4. 變格漢文的 懸吐體 注釋文

이상에서는 『杜詩諺解』 注釋文 중에서 懸吐體와 諺解體라는 두 가지 문체가 혼재하는 양상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懸吐體'라는 문체가 지니고 있는 언어적 성격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해 보고자 한다. 일찍이 南豐鉉(1972c: 2)에서도 지적된 바 있듯이 『杜詩諺解』 注釋文에서 볼 수 있는 懸吐體 文章中에서 懸吐를 消去하였을 경우 반드시 완전한 漢文 문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필자는 漢文 즉 文言(古典中國語)文으로서의 정확하고 부정확함, 자연스럽고 부자연스러움에 대하여 운위할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전형적인 사례 몇 가지만을 들어 그것을 확인해 보기로 한다.

『杜詩諺解』 注釋文을 내용상에서 살펴보았을 때에 적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다음과 같이 원문 중의 어구가 杜甫 스스로를 가리킴을 설명하는 예들이다²⁷⁾:

(35) 賤子_는 甫_ㅣ라. (“賤子何人記 迷方著處家”) (0327a6)

(36) 客子_는 甫_ㅣ라. (“客子入門月皎皎 誰家搗練風淒淒”) (0345b1)

26) (33)의 '必'은 엄밀하게 말하면 '沉牛(訢-)'까지가 아니라 '報荅 訢-'까지를 수식하고 있다.

27) 여기에서 이 'X는 甫ㅣ라'라는 문장이 과연 '懸吐體'인가 하는 의문의 제기될 수 있다. 다시 말하여 이러한 유형은 이미 '懸吐體'가 아니라 '순수히 한국어로 된' '諺解體'에 속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떠오르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本稿에서 이 유형의 주석문을 일단 懸吐體로 분류해 놓은 것은 그 용례의 한글 부분(즉 조사 '는(/는)/은/은' 및 계사 활용형 '-ㅣ라')에 성조를 표시하는 傍點이 표기된 예가 일절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위의 주석 12 참조).

- (37) 野人은 甫ㅣ라. 靦顔은 無媿色也ㅣ라. (“野人曠蕩無靦顔 豈可久在王侯間”)
(2555a6)
- (38) 行宮은 指贈詩所過之處ㅣ라. 元戎은 指中丞호고 野人은 甫ㅣ라. (“兩映行宮
辱贈詩 元戎肯赴野人期”)(1235a6)

이들 예에서 만약 懸吐를 삭제하여 가령 (35)를 ‘賤子甫’라 하였을 경우, 물론 文言 문법상 ‘賤子는 甫이다’라는 의미의 體言敍述語文(實體詞謂語句)으로서²⁸⁾ 아주 잘못된 것은 아닐지 몰라도, 예컨대 ‘賤子인 甫’와 같이 ‘賤子’가 ‘甫’를 수식하는 구조로²⁹⁾ 이해될 수도 있으며, 더욱이 이것이 더 긴 문맥 안에 놓였을 경우 句讀를 정확히 달기조차도 불안해질 듯하다.³⁰⁾ 실제로 本稿에서 조사한 범위에서 ‘X는 甫ㅣ라’('X는 甫ㅣ니' 등도 포함)라는 注釋이 달린 구절에 대한 『纂註分類杜詩』의 注釋을 확인해 보면, ‘*X甫’와 같은 句型은 일절 발견되지 않았으며, 가령 위의 (35)~(38)에 해당 부분은 각각 ‘師曰: ‘賤子’, 甫自稱.’, ‘夢弼曰: ‘客子’, 甫自言也.’, ‘趙曰: ‘野人’, 公自謂也.’, ‘夢弼曰: ‘元戎’, 美嚴公也: ‘野人’, 甫謙辭也.’ 등으로 되어 있다.³¹⁾

懸吐體 문장에서 懸吐를 삭제하였을 때에 漢文으로서는 거의 성립되지 않게 되는 사례를 한 가지 더 살펴보자:

- (39) 王陽이 在位어늘 貢禹ㅣ 彈冠호니라. 此는 甫ㅣ 貢禹로 自比而之晉이 已死호니 爲音容이 間也ㅣ라. … (“貢喜音容間 馮招病疾纏”)(2452a4)

28) 楊伯峻(1955:2016: 237) 참조.

29) 楊伯峻(1955:2016: 41-42) 참조.

30) 가령 (37)에서 懸吐를 삭제하여 ‘野人甫靦顔無媿色也’만을 본다면 ‘野人인 甫’(?)를 ‘靦顔無媿色也’의 주어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다(물론 詩의 대한 풀이로서는 그것도 결과적으로 맞기는 하나).

31) 물론 이의강(2006: 111-123)에서 지적되었듯이 『杜詩諺解』 편찬 과정에서 『纂註分類杜詩』 이외의 주석서를 참조하였다면, 거기에 ‘X甫’와 같은 句型으로 된 주석문이 있었을 가능성도 전무치는 않다. 그러나 그렇다 하여도 『杜詩諺解』에서 ‘X는 甫ㅣ라’ 주석문이 이토록 빈번히(初刊本이 전하는 卷에서는 34개) 발견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懸吐를 삭제한 문장이 『杜詩諺解』의 중심적인 저본이라 할 수 있는 『纂註分類杜詩』 주석문에서(적어도 ‘X는 甫ㅣ라’ 주석문과 대응되는 위치에서) 일절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으로 보아, ‘X甫’라는 句型이 (만약에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文言文으로서 일반적이지 않음을 짐작하게 한다.

- (40) 甫 | 客星으로 自比하고 使星으로 比据하다. … (“客星空伴使 寒水不成潮”) (2046b2)

위의 예문 중 밑줄을 친 부분에서 현토를 삭제한 ‘此甫貢禹自比’, ‘甫客星自比’는 漢文=文言文으로서 바라보았을 때 거기에서 『杜詩諺解』의 이 注釋文에서 의도되었을 뜻을 읽어내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할 수 있다.³²⁾

한편 다음의 예를 보자:

- (41) … 吳人 季札이 聘晉而過徐 | 어늘 其君이 愛札의 佩劍이러니 及還而徐君이 已死 | 어늘 遂解劍하야 繫冢樹而去하니 此는 甫 | 以札로 自比也 | 라. (“對碁陪謝傅 把劍覓徐君”) (2444a4)

역시 (39), (40)과 마찬가지로 杜甫가 다른 인물이나 사물로 스스로를 비유하였음을 설명하는 주석인데, 밑줄을 친 부분에서 懸吐를 삭제한 ‘甫以札自比也’는 文言文으로 충분히 성립한다.³³⁾ ‘懸吐體’ 문장 중에는 유사한 맥락을 가졌으면서도 懸吐를 삭제하였을 때에 漢文 文法에서 벗어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공존, 혼재하고 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³⁴⁾

32) 참고로 이들 주석이 의거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는 『纂註分類杜詩』의 주석은 각각 ‘夢弼曰：甫以貢禹自比也。按集〈上韋左丞〉詩曰：“竊效貢公喜”，今韋大夫已死，故云音容間也。’，‘趙曰：‘客星’，公自謂也；‘伴使’，以言伴盧之爲使星也。’로 되어 있다.

33) 『纂註分類杜詩』의 주석은 ‘夢弼曰：‘把劍’，甫以季札自比，將欲出之於房太尉之墓也。’로 되어 있어 문제가 되는 부분은 『杜詩諺解』의 주석과 거의 동일하다.

34) 南豊鉉(1972c: 7)에서는 (39), (40)과 같은 예를 (41)과 같이 ‘以……로’가 呼應을 이루는 구조에서 ‘以’가 消去된 것으로 해석한 바 있다. 다만 모든 예가 꼭 그것에 해당되는 것도 아닐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예도 한편에서는 존재한다:

甫 | 自註鄭은 高簡하야 得謝太傅之風하고 李는 宗親이라 有燕昭之美라하니 此는 燕昭로 比李之芳의 喜客也 | 라 (“安石名高晉 昭王客赴燕”) (2012a4)

이와 대응하는 『纂註分類杜詩』의 주석은 ‘夢弼曰：此以燕昭比李之芳喜佳客也。’로 되어 있어, 文言文로서는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 그런데 같은 주석이 『杜工部草堂詩箋』에서는 ‘夢弼謂：此燕昭比李之芳喜佳客也。’(卷30)로 ‘佳’字의 유무에서 차이가 날 뿐 구문상으로는 오히려 『杜詩諺解』 주석문에서 懸吐를 제거한 것과 동일하게 되어 있다. 구문상의 문제와 더불어 『杜詩諺解』 주석문 작성 과정에 대해 생각하는 데 있어 흥미로운 예로서 여기에 지적해 둔다.

5. 『杜詩諺解』 注釋文의 言語的 位相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바탕으로 ‘懸吐體’의 특징을 정리하면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 1) ‘諺解體’와는 어디까지나 별개의 문체로 간주되면서;
- 2) ‘羅列’, ‘連結’, ‘內包’ 등 갖가지의 방식으로 ‘諺解體’와 공존, 혼재하고 자유롭게 서로 넘나들 수 있으며;
- 3) 懸吐를 삭제한 나머지가 正格漢文으로 성립되는 것(기존의 漢文 注釋에 懸吐를 단 것도 포함)에서부터, ‘한자의 나열’만으로는 한문(중국어)으로 성립되지 않고 현토의 도움을 빌려야 비로소 의미 전달이 가능한 것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의 단계에 걸쳐 분포하(고 또한 그러한 각종 단계들이 한 문장 안에서 혼재할 수도 있)는 문체.

1)에 대해서는 懸吐體가 원칙적으로는(후술) 注釋文에 한하여 나타난다는 분포상의 차이,³⁵⁾ 그리고 懸吐體 부분에서는 諺解體의 경우와 달리 원칙적으로는 傍點이 표기되지 않는다는 점을³⁶⁾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 3)에 대해서

35) 南豐鉉(1973: 521)에서는 『杜詩諺解』 注釋文에 屬格助詞 ‘스’이 ‘ㅎ’으로 표기된 예가 발견되는 점을 들어 ‘이것은 世宗代의 間音表記法의 餘痕으로 남은 것으로 이 註釋文의 草稿가 成宗 이전에 형성되었음을 말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에 그렇다면 懸吐體가 (원칙적으로) 注釋文에만 나타난다는 분포는 注釋文과 諺解文이 만들어진 시점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도 이해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ㅎ’이 표기된 예가 단 한 개이기는 하나 諺解文에서도 발견된다:

여·숫 고·대 ·덧는 印·을 子細 ·히 :보니 官ㅎ 字·를 帶 ·ㅎ·얏·느·니 … “細看六印帶官字 …” (1727a4)

南豐鉉(1973: 521)에서 제시된 예[“… 曹娥碑陰에 有黃絹幼婦外孫蘆白八字ㅎ니 黃絹은 色絲 |니 絶ㅎ 字 |오 幼婦는 少女 |니 妙ㅎ 字 |오 外孫은 女子 |니 好ㅎ 字 |오 蘆白는 受辛이니 辭ㅎ 字 |니 謂絶妙好辭也 |라. … (“謾作潛夫論 虛傳幼婦碑”)(1609a8)]도 포함하여 모두 ‘字(·즈)’ 앞에서 나타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河崎啓剛(2015)의 상세한 논의가 참고된다.

36) 위의 주석 12), 27) 참조.

는 앞서 第2, 3章에서 살펴보았다.

그런데 2), 3)과 같은 특징을 볼 때 ‘懸吐體’(및 그것이 대반을 차지하는 『杜詩諺解』 주석문과 같은 문장)란 외관상 불통일하다는 인상을 면키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론적으로 볼 때 그 당시 서책에 실리어 널리 유포되기에 이상적이라 여겨졌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藤本幸夫(1978)에서는 退溪 李滉이 吏讀文으로 쓴 글이 文集이나 實錄에 수록되면서 吏讀的 요소가 삭제되거나 보다 正格 漢文에 가깝게 편집되는 등의 조작이 가해진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³⁷⁾ 그렇다면 2), 3)과 같이, ‘덜 다듬어진’³⁸⁾ 감을 금치 못하는 글이 어명을 따라 編纂, 印

37) 吏讀와 懸吐는 물론 원래 별개의 것이나 藤本幸夫(1978)에서 소개된 退溪의 글은 SVO 어순을 기조로 한 짧은 구절 사이에 ‘乙良’, ‘矣段’과 같은 조사류, ‘爲(호-)’의 활용형, ‘必于’, ‘況旆’와 같은 부사 등을 개재시킨 형식으로 지어졌다는 점에서 그 실체는 『杜詩諺解』 주석문의 ‘懸吐體’와 매우 유사하다. 소위 ‘吏讀’文이 한국어 문장과 漢文懸吐文을 兩極으로 하여 그 사이에 분포하고 있음은 伊藤英人(2017: 152-153)에서 지적된 바 있다. 본고에서 말하는 ‘懸吐體’의 성격을 생각하는 데 있어 흥미로운 사례라 할 수 있다.

38) 이는 물론 그 외관에 대한 주관적인 인상에 불과하다. 실제로는 오히려 어떠한 규격을 따라 전체적으로 골라졌을 가능성을 보여 주는 사례가 여럿 확인된다. 가령, 杜甫를 가리키는 호칭으로서 『纂註分類杜詩』에서는 ‘甫’, ‘公’ 등 여러 가지가 사용되는데, 『杜詩諺解』에서는 철저히 ‘甫’로 통일되어 있으며, 다만 ‘夏夜李尙書筵送宇文石首赴縣聯句’(卷23)에서 杜甫가 지은 句 밑에 ‘子美’라는注가 달려 있는 것이 유일한 예외이다. 또한 音注에서 反切을 제시할 때 『纂註分類杜詩』에서는 ‘AB切’이 일반적인 반면 『杜詩諺解』에서는 대부분이 ‘AB反’으로 되어 있으며[예: ‘韞는 丁可反호니 垂下兒 | 라. …(“江村野堂爭入眼 垂鞭鞞靸凌紫陌”)(0352a8). cf. 『纂註分類杜詩』 ‘夢弼曰: 韞, 丁可切. …補註: ‘韞, 垂下貌.’] 예외는 ‘宿은 思救切호니 列星也 | 라. … (“異獸如飛星宿落 應弦不礙蒼山高”)(0536b3. cf. 『纂註分類杜詩』 ‘鄭曰: ‘宿’, 思救切, 列星也.)’를 비롯한 소수에 그친다[또한 그 중에서 ‘貌은 墨角切호니 描畫也 | 라. (“先帝天馬玉花驄 畫工如山貌不同”)(1626b1)는 重刊本에서 ‘墨角反’으로 되어 있는바 校正 과정에서 ‘切’을 일부러 ‘反’으로 수정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李浩權(2003: 145-148) 참조]. 뿐만 아니라 校正을 거치는 과정에서 懸吐體를 일부러 諺解體로 수정한 예도 발견된다. 懸吐體와 諺解體가 혼재되는 모습이 ‘덜 다듬어진’ 것이라고 인식되고 있었다면 이러한 일은 일어나기 어려웠을 것이다:

蓄積은 猶鬱結이니 思以濯之也 | 라. 町畦는 岸畔也 | 니 모 난 양 흘 · 슬 니르 · 다(← ‘猶言有圭角也 | 라). (“蓄積思江漢 頑踈惑町畦”)(0708b3)

한편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李鍾默(1998: 152-153)에서 이미 지적된 바 있듯이 ‘懸吐體’ 주석문과 ‘諺解體’ 주석문의 비율은 卷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다시 말하여 어떤 권에서는 ‘諺解體’ 주석문이 거의 모든 頁에 걸쳐 나타나다시피 즐비하게 발견되는가 하면, 또 어떤 권에서는 주석문의 상당수를 ‘懸吐體’가 차지한다는 등 들쭉날쭉한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다시 논의를 시도해 보려 하

刊된 서책에서 몇몇하게 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³⁹⁾

여기에서 『杜詩諺解』 편찬 경위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자:

- (42) …成化辛丑秋, 上命弘文館典翰臣柳允謙等, 若曰: “杜詩, 諸家之註, 詳矣。然《會箋》, 繁而失之謬; 須溪, 簡而失之略, 衆說紛紜, 互相抵牾, 不可不研覈而一, 爾其纂之。”於是, 廣摭諸註, 芟繁釐枉, 地里、人物、字義之難解者, 逐節略疏, 以便考閱; 又以諺語譯其意旨, 向之所謂艱澁者, 一覽瞭然。…一—曹偉, 「杜詩序」⁴⁰⁾
- (43) 惟 上之十二年月日, 召侍臣, 若曰: “詩發於性情, 關於風教, 其善與惡, 皆足以勸懲人, 大哉 詩之教也! 三百以降, 惟唐最盛, 而杜子美之作爲首。上薄風、雅; 下該沈、宋, 集諸家之所長, 而成大焉。詩至於子美, 可謂至矣。而詞嚴義密, 世之學者, 患不能通, 夫不能通其辭, 而能通其訣者, 未之有也。其譯以諺語, 開發蘊奧, 使人得而知之。”於是, 臣某等受命, 分門類聚, 一依舊本, 雜采先儒之語, 逐句略疏, 間亦附以己意; 又以諺字譯其辭, 俚語解其義, 向之疑者釋, 窒者通, 子美之詩, 至是無餘蘊矣。…一—金訢, 「翻譯杜詩序」

되, 적어도 이러한 분포상의 불균형을 허용한 것도 어쩌면 후술할 바와 같은 ‘懸吐體’ 주석문과 ‘諺解體’ 주석문의 연속성, 동질성을 보여 주는 것일지도 모른다.

39) 본고에서 살펴본 『杜詩諺解』 주석문의 문체는 언뜻 보면 中世 日本의 ‘抄物’에서 발견되는 다음과 같은 文體를 방불케 한다:

唯此兩句ノミ不_レ謂_レ酒⁷ 似乘船 水中眠 皆タラリト醉タル體也 (中略) 知章⁸浙人也 浙人不喜騎馬而喜_レ乘_レ船 杜知章カシカシケニ騎_レ馬⁹ニ嘲也 (中略) 一說ハ眼花ハ日星也 言酒ニ酔テマホシ散テ歩ム時ニ落タリトモ井水底ニ眠ヘキ也 水底眠ハ言舊ト能乘船故醉則船底ニ眠ト思也 …[오직 이 두 句만 술을 말하지 않았다. ‘似乘船’, ‘水中眠’ 모두 지나하게 취한 모습이다. (中略) 賀知章은 浙 지역 사람이다. 浙 사람은 말을 즐겨 타지 않고 배를 즐겨 탄다. 杜甫가 知章이 그럴싸하게 말을 타고 다니는 것을 비웃은 것이다. (中略) 일설에 ‘眼花’는 눈앞에 보이는 별이다. 술에 취하여 눈앞에 별을 날리며 걸어 가다가 떨어져도 우물 바닥에서 잠들 만함을 말한다. ‘水底眠’이란 원래 배를 잘 탈 줄을 알기에 취하면 배 바닥에서 자는 줄 앎을 말한다. …](雪嶺永瑾 『杜詩抄』 卷第一之下 「飲中八仙歌」 중 “知章騎馬似乘船, 眼花落井水底眠” 부분. 중간에서 『集千家註批點杜工部詩集』의 주석 “浙人不喜騎馬, 而喜乘船, 杜蓋朝(嘲)之.” (卷一)가 거의 그대로 섞이는 것도 『杜詩諺解』의 주석 방식과 유사하다.)

다만 ‘抄物’이 博士家나 五山 禪林 등에서 강학을 위한 강의 초안이나 또는 강의 필기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柳田征司(1998: 5) 참조], 왕명에 의해 편찬되어 官版으로 印刊된 『杜詩諺解』와 그 성격에 차이가 있다.

40) 『杜詩諺解』 重刊本에 의거함.

위의 두 序文을 통하여 첫째, 注釋 작업(‘廣摭諸註, 芟繁釐枉, 地里、人物、字義之難解者, 逐節略疏’; ‘雜采先儒之語, 逐句略疏, 間亦附以己意’)과 諺解 작업(‘又以諺語譯其意旨’; ‘又以諺字譯其辭, 俚語解其義⁴¹⁾’)이 별개 과정으로 이루어진 듯하며; 둘째, 杜詩를 ‘譯’하는 것을 특히 ‘諺’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注釋과 ‘諺’의 관계는 어떠하였을까? 이 물음에 대해 시사를 줄 수 있는 예가, 初刊本이 전하지 않으므로 본고에서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 『杜詩諺解』 卷1에서 발견된다(原本의 형태를 반영하여 注釋文과 諺解文의 경계를 ‘○’로 표시한다):

(44) 翠華는 以翠羽爲葆 | 니 天子入 所建 | 라. ○ 都邑入 사름미 肅宗入 收復京師 訶야 오시는 翠華를 브라느니 祥瑞로운 氣運도 金闕을 向訶야 오는다. (“都人望翠華 佳氣向金闕”) (0109b8)

(45) 物累는 口體妻子之累 | 라. 四行役은 네 번 든닐 시라. ○ 내 엇디라 物累에 逼迫訶야 一年에 發華州秦州成州同谷訶거니오? (“奈何迫物累 一歲四行役”) (0125b7)

(44)의 ‘肅宗入 收復京師訶야 오시는’, (45)의 ‘發華州秦州成州同谷訶-’는 杜詩 本文에 없는 내용을 보완한 것인데,⁴²⁾ 주목을 끄는 것은 이들이 (가령 *京師를 收復訶야,⁴³⁾ *네 번 든니거니오와 같이 표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懸吐體’

41) ‘俚語解其義’라는 구절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으나, 적어도 그 당시 ‘俚語’가 韓國語를 가리킬 수 있었음은 다음과 같은 예를 통하여 알 수 있다. 다음은 金訶의 아들 金安老에 의한 기록으로, ‘餘’의 뜻을 가진 ‘俚語’(‘나·문’)가 ‘南閭’과 음이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我 太宗朝, 有“彼南山, 往伐石, 釘無餘矣。”之謠, ‘釘’者, 伐石之具也. 未幾, 南閭、鄭道傳以事誅. ‘南’謂南閭也; ‘釘’與‘鄭’同音, 謂鄭道傳也. ‘餘’字之釋, 俚語與‘南閭’之音相似, 謂: “鄭、南, 無矣”. …—『希樂堂稿』 卷八.

42) 본문에 없는 내용이 언해문에 보완되는 예 자체는 『杜詩諺解』에서 간단히 볼 수 있다 [예: ‘天地 어·윈 디 標·를 :세니 나·사 가·리 그·쳐 :네와 ·이제 ·더 :피흘 迷失 ·訶·느 니·라’ “建標天地闊 詣絕古今迷” (1913b2)].

43) cf. ‘感激 ·訶야 四極·을 뒤·우니 니·수 ·취여 :두 :셔울·흘 收復 訶·니라’ “感激動四極 聯翩收二京” (2420a3)

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이 부분의 내용은 『纂註分類杜詩』 주석 중 ‘夢弼曰：都人望肅宗之收復京師。‘翠華’，謂以翠羽爲葆。’，‘師曰：二歲之中，凡四行役，夏發華州，十一月離秦州，故詩云：“漢源十月交”；十一月至成州，故云：“仲冬見虹霓”；十二月發同谷，故云云。’에서 비롯되었음이 분명하다. 통상적으로는 ‘懸吐體 注釋’으로 실현되어야 마땅할 내용이 諺解文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⁴⁴⁾ 이러한 사례는 ‘懸吐體’가 ‘諺’의 영역에 진입할 수 있었음을, 다시 말하여 ‘懸吐體’와 ‘諺’의 親和性을 보여 준다 하겠다.

이를 역으로 확장한다면 懸吐體가 대만을 차지하는 注釋文도 그 자체가 결국 ‘諺’의(적어도 ‘諺’을 거부하지 않는) 영역이라 볼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懸吐體’와 함께 ‘諺解體’가 혼재할 수 있었다.⁴⁵⁾ 결국 『杜詩諺解』 편찬자들에게 있어 注釋文도 (아무리 중국어적 색채가 짙어진다 한들) 어디까지나 ‘諺語로 쓴다’라는 인식으로 집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⁴⁶⁾ ‘諺語’인 이상은, 더욱이 ‘其譯以諺語’라는 어명에 의해 편찬된 서책에 언뜻 보면 ‘파격적인’ 言語가 실리는 데 대하여 그다지 거부감을 느끼지는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6. 나가며

이상 本稿에서는 『杜詩諺解』 注釋文 가운데, 우선 ‘懸吐體’와 ‘諺解體’가 혼합

44) 이와 같은 ‘錯綜’이 비록 이 두 개라는 극소수이기는 하나, 卷1에만 나타난다는 사실은 『杜詩諺解』 편찬 초기에 빚어진 시행착오의 흔적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닌가 상상해 본다. 金訥의 『翻譯杜詩書』에서 ‘凡閱幾月，第一卷先成，繕寫投進，以稟 睿裁，上賜覽，曰：“可，令卒事。”仍命臣序之。’라 한 내용과 관련하여 흥미롭다.

45) 무엇보다 3.3. 및 3.4.에서 살펴본 사례들이 말하여 주듯이 ‘懸吐體’와 ‘諺解體’는 그 경계에 있어 다분히 연속적이다.

46) 이러한 의미에서 『杜詩諺解』의 懸吐體 注釋文은 『楞嚴經』을 비롯한 刊經都監 刊行 佛典 諺解書에서 볼 수 있는 懸吐된 注釋과 그 位相을 根本的으로 달리 한다. 佛典 諺解書의 경우 懸吐된 주석문은 기존의 注疏 그대로의 문장에 懸吐를 단, 다시 말하여 어디까지나 ‘文’이다. 그러므로 거기에 다시 ‘諺’解가 붙는다.

된 모습을 띠는 ‘混合體’로 된 것에 대하여 유형별로 살펴보고, 또한 ‘懸吐體’ 문장 가운데 漢語 문법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는 變格的인 예가 존재함을 확인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杜詩諺解』 注釋文, 특히 懸吐體 注釋文의 言語的 位相에 대하여 해석을 시도하였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찍이 南豊鉉(1972c: 3)에 의하여 ‘國語와 漢語의 中間에 位置하는 雜種言語’라는 표현과 함께 다음과 같이 도식화된 바 있다:

漢語 — 懸吐된 漢文 — 杜詩諺解注釋文 — 吏讀文 — 國語

또한 南豊鉉(1973: 560)에서 ‘『杜諺』의 주석문은 주어진 한문을 해독하기 위해서 현토한 문장이 아니라 현토한 한문을 학습해서 第三의 言語能力을 얻은 譯註者가 한어문법에 대해서 철저한 구애를 받지 않고 창작한 문장’이라고 파악하였다.

본고에서도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기초하여 이러한 견해에 찬동하는 바이다. 또 나아가 『杜詩諺解』 注釋文을 구성하는 ‘懸吐體’와 ‘諺解體’가 그 경계 부분에 있어 완만한 연속체를 이루고 서로 넘나들 수 있어, 당시인의 인식 속에서는 함께 ‘諺語’의 범주에 묶여 있었을 것으로 추론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당시 文人들의 言語生活의 일면을 보여 주는 것’으로,⁴⁷⁾ 그들에 의해 만들어진 『杜詩諺解』를

47) 南豊鉉(1973: 490). 더욱이 당시 문인들이 지은 ‘時調’를 읽다 보면 본고에서 살펴본 문체들과 유사한 느낌을 주는 구절들을 到處에서 만나게 된다. 그러한 예들은 매거할 수도 없지만, 가령 退溪 李滉의 「陶山十二曲」 중에서도 몇몇 사례들을 발견할 수 있다:

幽蘭이 在谷 ㅎ니 自然이 듣디 도해 白雲이 在山 ㅎ니 自然이 보디 도해 (陶山六曲之一 其四)

山前에 有臺 ㅎ고 臺下에 有水 | 로다 (全 其五)

春風에 花滿山 ㅎ고 秋夜에 月滿臺 라 (全 其六)

참고로 退溪가 「陶山十二曲跋」에서 ‘…凡有感於情性者, 每發於詩, 然今之詩, 異於古之詩, 可詠而不可歌也. 如欲歌之, 必綴以俚俗之語, 蓋國俗音節, 所不得不然也. 故嘗略倣李歌(=‘李鼈六歌’), 而作爲〈陶山六曲〉者二焉——其一: 言志; 其二: 言學, 欲使兒輩朝夕習而歌之, 憑兒而聽之; 亦令兒輩自歌而自舞蹈之.’라 하는 것도 흥미롭거니와, 여기에서 말하는 ‘綴以俚俗之語’云云은 漢詩를 노래로 부를 때에 ‘俚俗之語’로 된 懸吐를 곁들여 구절을 이어 주고 나서야 한국어로서의 리듬에 맞게 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할지도 모른다. 退溪는 또 「書漁父歌後」에서 ‘世所傳〈漁父詞〉, 集古人漁父之詠, 間綴以俗語而爲之

비슷한 동시기의 한글자료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도 고려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존재라 본다.⁴⁸⁾

그런데 한편에서는 ‘懸吐體’의 언어가 다분히 ‘中國語的’이라는 점을 부인할 여지가 없다. 伊藤英人(2010: 154-155)에서는 중국 青海省의 ‘五屯人’이 사용하는 ‘中國語 크리올’인 ‘五屯語’에 대해 언급하면서, ‘어휘의 대반은 중국어에 기원을 두지만 ‘성조를 상실’하였으며, 어순은 알타이형이고 알타이어처럼 조사, 조동사가 사용된다. 이 크리올이 ‘중국어’의 변종이라면 한국의 漢文懸吐直讀도 충분히 ‘중국어 크리올’의 일종으로 간주될 수 있다.’라고⁴⁹⁾ 지적하였다.⁵⁰⁾ 本稿에서 다룬 『杜詩諺解』 주석문의 ‘懸吐體’에 대하여 향후 中國語史의 관점에서도 검토될 필요성을 느끼는 바이다.

주제어 : 두시언해, 주석, 현토, 언어(諺語), 한문, 중세 한국어

투고일(2018. 2. 9), 심사시작일(2018. 2. 19), 심사완료일(2018. 3. 9)

長言者. …(『退溪集』 卷43)라는 표현을 사용한 바 있는데, ‘雪鬢漁翁이 住浦間, 自言居水이 勝居山이라 ㅎ는다. 비 떠라, 비 떠라, 早潮纔落晚潮來 ㅎ느(늦?)다. 至匆忽 至匆忽 於思臥. 倚船漁父이 一肩이 高로다.’(『壘巖集』 卷3)와 같은 「漁父歌」의 문체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綴以俗語’의 뜻은 다분히 그러한 해석에 가까워 보인다.

48) 위의 주석 25)에서 본 바와 같은 經書諺解의 諺解文이, 약간 후대에 속하기는 하나, 바로 그것을 보여 주는 하나의 예라 하겠다.

49) 원문은 일본어, 번역은 인용자에 의함.

50) 또한 伊藤英人(2017: 172) 참조.

참고문헌

『分類杜工部詩』 初刊本.⁵¹⁾

卷之三: 李謙魯 先生 舊藏本, 『韓國語研究』 5, 韓國語研究會(2008) 影印.

卷之五: 南豐鉉 先生 舊藏本, 『韓國語研究』 11, 韓國語研究會(2014) 影印.

卷之六: 서울大學校 奎章閣 가담文庫 所藏本(가담古貴 895.11-D85yKy-v.6, 東京大
福井玲 先生님 調査 資料) ※校正本.

卷之七: a) (위의 卷之六과 合綴) ※校正本.

b) 李謙魯 先生 舊藏, 國立中央圖書館 所藏本(古3641-28 貴730).

c) 서울大學校 中央圖書館 所藏本(일석貴 895.113 T79bKy v.7), 서울大學
校 中央圖書館 웹사이트(<http://lib.snu.ac.kr/>) 公開 寫眞 資料.

卷之八: 李謙魯 先生 所藏本, 通文館(1954) 影印.

卷之九: 李謙魯 先生 所藏本, (複寫本).

卷之十: a) 李謙魯 先生 舊藏 韓國學中央研究院 藏書閣 所藏本(D3C-33D/貴216).

b) 東國大學校 中央圖書館 所藏本(819.13 두45ㄴ3 v.10).

卷之十一: a) 서울大學校 奎章閣 所藏本(古貴 895.11-D85b-v.11).

b) 啓明大學校 童山圖書館 所藏本, 문화재청 국가기록유산 웹사이트
(<http://www.memorykorea.go.kr/>) 公開 寫眞 資料.

c) 世宗大王記念事業會 所藏本(?), 同會(1978) 影印[임홍빈 譯注(2012),
『역주 분류두공부시언해 권11』, 세종대왕기념사업회 再錄].

卷之十二: a) 啓明大學校 童山圖書館 所藏本(위의 卷之十一 啓明大學校 童山圖書
館 所藏本과 合綴).

b) 某處 所藏本(複寫本).

卷之十三: 京畿道博物館 所藏本, 문화재청 국가기록유산 웹사이트([http://www.
memorykorea.go.kr/](http://www.memorykorea.go.kr/)) 公開 寫眞 資料.

51) 影印, 複寫, 또는 웹사이트 等 出處 事項 記載가 없는 卷은 모두 筆者가 原本을 直接 閱覽하여 實查하였다. 調査를 順調로이 進行할 수 있게 筆者를 小倉文庫에 紹介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親히 調査하신 貴重한 資料의 使用을 許諾하여 주신 東京大學의 福井玲 先生님, 奎章閣 副院長(當時)이라는 多忙하신 몸으로 奎章閣 所藏 資料를 調査할 수 있는 機會를 提供하여 주신 서울大學校의 李賢熙 先生님, 文獻의 所藏 狀況을 비롯하여 書誌學的 見地에서 數많은 貴重한 가르침을 주신 韓國放送通信大學校의 李浩權 先生님, 筆者가 여러 次例에 걸쳐 原本 調査를 進行하는 동안 貴重한 藏書임에도 不拘하고 充分한 時間을 들여 閱覽을 할 수 있게끔 아낌없이 도움을 주신 東國大學校 中央圖書館의 申海澈 先生님을 비롯하여, 筆者의 研究에 對해 많은 理解와 協助를 주신 各處 所藏機關의 여러 擔當 先生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삼가 甚深한 謝意를 表하는 바이다.

- 卷之十四: 趙參衍 先生 所藏本, 『한글』 152, 한글학회(1973) 影印.
- 卷之十五: 서울大學校 奎章閣 가담文庫 所藏本(가담古貴 895.11-D85yKy-v.15-16).
- 卷之十六: a) 서울大學校 奎章閣 가담文庫 所藏本(위의 卷之十五와 合綴).
b) 李謙魯 先生 所藏本(第74頁만), 福井玲(1987: 48).
- 卷之十七: a) 國立中央博物館 所藏本 ※校正本.
b) 東京大學 文學部 小倉文庫 所藏本(L174385).
c) 李謙魯 先生 所藏本, 弘文閣(1985) 影印.
- 卷之十八: a) 國立中央博物館 所藏本(위의 卷之十七 a)와 合綴) ※校正本.
b) 외솔本(許雄 先生 校正 資料의 複寫本).
- 卷之十九: a) (위의 卷之十七 a), 十八 a)와 合綴) ※校正本.
b) 南豐鉉 先生 舊藏本.
- 卷之二十: a) 東國大學校 中央圖書館 所藏本(귀중도서 819.13 두45ㄷ3 v.11).
b) 李謙魯 先生 所藏本, 通文館(1955) 影印.
- 卷之二十一: a) (위의 卷之二十 a)와 合綴).
b) 李謙魯 先生 舊藏, 淸州古印刷博物館 所藏本, 디지털 한글박물관 웹사이트 (<http://www.hangeulmuseum.org/>) 公開 寫眞 資料.
- 卷之二十二: a) 金知憲 先生 所藏本(東京大 福井玲 先生님 調査 資料).
b) 李謙魯 先生 所藏本, 通文館(1955) 影印.
- 卷之二十三: a) 金知憲 先生 所藏本(東京大 福井玲 先生님 調査 資料).
b) 李謙魯 先生 所藏本, 通文館(1955) 影印.
- 卷之二十四: 서울大學校 奎章閣 一簣文庫 所藏本(一簣古貴 E895.11-D85-v.24).
- 卷之二十五: 李謙魯 先生 舊藏 東國大學校 中央圖書館 所藏本(819.13 두45ㄷ3 v.25).
- 『分類杜工部詩』 重刊本, 以會文化社 影印(1992).
- 『纂註分類杜詩』(京都大學 文學部圖書室 所藏, 世宗26年刊 初鑄甲寅字本), 以會文化社 影印(1992).
- 『九家集注杜詩』, 洪業·聶崇岐·李書春·趙豐田·馬錫用 編(1940), 『杜詩引得』, 哈佛燕京學社引得編纂處[上海古籍出版社 影印(1983)] 所收.
- 『杜工部草堂詩箋』(古逸叢書本), 廣文書局 影印(出版年 未詳).
- 『集千家註分類杜工部詩』(元 皇慶元年[1312] 刊本), 大通書局 影印(1974 杜詩叢刊 第一輯).
- 『集千家註批點杜工部詩集』, 八木書店 影印(1981 天理圖書館 善本叢書 漢籍之部 第四卷).

雪嶺永瑾 撰, 『杜詩抄』(足利學校遺蹟圖書館藏本), 光風社書店 影印(1970).

金訢 撰, 『顏樂堂集』, 民族文化推進黨, 『影印 標點 韓國文集叢刊』 15, 景仁文化社 影印(1988:1996).

李賢輔 撰, 『龔巖集』, 民族文化推進黨, 『影印 標點 韓國文集叢刊』 17, 景仁文化社 影印(1988:1996).

金安老 撰, 『希樂堂稿』, 民族文化推進黨, 『影印 標點 韓國文集叢刊』 21, 景仁文化社 影印(1988:1996).

李滉 撰, 『退溪集』, 民族文化推進黨, 『影印 標點 韓國文集叢刊』 29~31, 景仁文化社 影印(1989:1996).

『論語諺解』(陶山書院 所藏 校正廳本), 漢陽大學校附設 國學研究院 影印(1974).

李滉, 「陶山十二曲」 『梅花詩』, 서울大學校 奎章閣 가람文庫 所藏本(가람古811.081-Y56m),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웹사이트(<http://e-kyujanggak.snu.ac.kr/>) 公開 寫眞 資料.

河崎啓剛[가와사키 케이고](2015), 「15세기 한국어 속격 '-스'의 이표기들의 분포」 『震檀學報』, 第123號, 震檀學會.

金完鎭(1983), 「한국어 文體의 발달」, 李基文·姜信沆·金完鎭·安秉禧·南基心·李翊燮·李相億, 『韓國 語文의 諸問題』, 一志社.

南豐鉉(1972a), 「中世國語의 中國語 借用 研究: 單音節 體言을 中心으로」 『論文集』 6, 漢陽大學校.

_____ (1972b), 「15世紀 國語의 漢字語 借用考」 『國文學論集』 5·6, 檀國大學校 人文大學 國語國文學科.

_____ (1972c), 「『杜詩諺解』 註釋文의 “-로”에 대한 考察: 國語에 미친 漢語의 文法的 影響을 中心으로」 『論文集』 6, 檀國大學校.

_____ (1973), 「『杜詩諺解』 註釋文의 文法的 考察」 『東洋學』 3,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南豐鉉(1999)에 「『杜詩諺解』 註釋文의 文法」에 再錄).

_____ (1999), 『國語史를 위한 口訣 研究』, 태학사.

沈慶昊(1998), 「조선조의 杜詩集 간행과 杜詩 受容」,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인문연구실 편(1998) 所收.

安秉禧(1998), 「『杜詩諺解』의 書誌學的 考察」,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인문연구실 편(1998) 所收.

이의강(2006), 『杜詩諺解 研究』, 다운샘.

李鍾默(1998), 「杜詩의 연해 양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인문연구실 편(1998) 所收.

- 李浩權(2003), 「杜詩諺解 重刊本の 版本과 言語에 대한 研究」 『震檀學報』 95.
- 조남호(2001), 『두시언해 한자어 연구』, 태학사.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인문연구실 편(1998), 『杜詩와 杜詩諺解 연구』, 太學社.
- 杨伯峻(1955;2016), 《文言语法》, 中华书局.
- 竹越孝(2015), 〈论朝鲜时代汉语教材中的特殊断句〉, 《中文学术前沿》, 第九辑, 浙江大学出版社.
- 伊藤英人(2010), 「朝鮮半島の書記史: 不可避の自己としての漢語」, 中村春作・市来津由彦・田尻祐一郎・前田勉 編, 『続「訓読」論: 東アジア漢文世界の形成』, 勉誠出版.
- _____ (2013), 「朝鮮半島における言語接触: 中国語への対処としての対抗中国化」 『語学研究所論集』 18, 東京外国語大学.
- _____ (2016), 「朝鮮半島における中国語受容(翻訳)と表出をめぐるいくつかの問題」, 中国近世語学会2016年度研究集会 「「直訳」と「直訳体」をめぐるワークショップ」 (2016.12.10, 愛知大学東京事務所) 発表文.
- _____ (2017), 「『蛙蛇獄案』吏読文の一分析」 『朝鮮語研究』 7, 朝鮮語研究会.
- 福井玲(1987), 「杜詩諺解初刊本について」 『東京大学言語学論集』, 東京大学文学部言語学研究室.
- 藤本幸夫(1978), 「朝鮮漢文: 吏読文からの昇華」 『語文』 34, 大阪大学国文学研究室.
- 柳田征司(1998), 『室町時代語資料としての抄物の研究』, 武蔵野書院.

〈Abstract〉

The Stylistics of the Annotation of *Twusi-Enhay*
– *Hyenthwo* Style and the Vernacular –

SUGIYAMA Yutaka *

As is commonly known, the annotation of *Twusi-Enhay*(杜詩諺解) consists of two kinds of sentences stylistically -- *Hyenthwo*(懸吐) Style and *Enhay*(諺解) Style. The former is completely identical to or at least similar to a Classical Chinese sentence with Korean syntactic markers(‘懸吐’) outwardly, while the latter is written in a more natural Middle Korean. The boundary between these two styles, however, is far from strict, but they can be easily alternated even within the same sentence. Furthermore, numerous *Hyenthwo* Style sentences contain grammatical errors when rendered in Classical Chinese if *Hyenthwo* are deleted.

Based on these facts, it is possible to conclude that these two sentence styles, when seen as a unified whole, in the annotation of *Twusi-Enhay* form a gradual continuum, and are unified into the concept of the Vernacular(‘諺語’) at least in the consciousness of its authors.

Key Words : *Twusi-Enhay*, annotation, *hyenthwo*, Vernacular, Classical Chinese, Middle Korean

* Assistant Professor, Faculty of Foreign Studies, Department of Asian Languages, Kyoto Sangyo University.